

+ WEEK 07

배우는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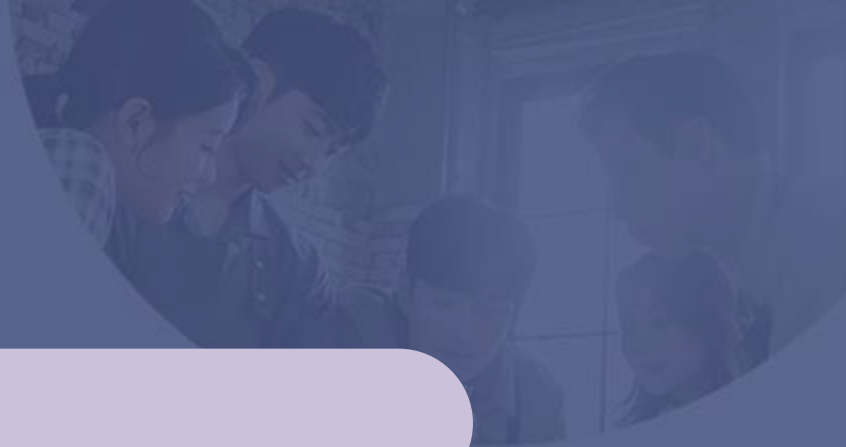
학습목표

- I. 왜곡된 '배움'의 의미를 찾는다
- II.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배우는 관계성 속에서 배움의 의미를 안다
- III. 안다는 것과 행위하는 것(실천, 현실, 실재)의 관계에 대해 배운다

학습목차

- I. 배움은 어떠한 것인가?
- II.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 III. 안다는 것





I. 배움은 어떠한 것인가?

1. 배움의 의미 탐색
2. 의미 만들기

1. 배움의 의미 탐색

1) 배우는 즐거움

學而時習之 不亦說乎(학이시습지 불역열호)

學 배울 학 / 而 말 이을 이 / 時 때 시 / 習 익힐 습 / 之 같지 / 不 아닐 불, 아닐 부 / 亦 또 역 / 說 기뻐할 열 / 乎 어조사 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 ✓ 학(學)이란 “무지로부터의 탈출”이며 “미지의 새로움에 대한 끊임없는 동경”
- ✓ “習”(익힌다)이라는 것은, 學이 미지의 세계로의 던짐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실천의 세계를 의미
- ✓ “悅”은 나의 실존적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뜻이요, “樂”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즐거움”을 표현

1. 배움의 의미 탐색

2) 근대적 지(知)

❖ 막스 베버

-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같은 절실한 '의식문제'가 점점 비합리적인 결단의 영역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
- 지가 가치에서 떨어져 나가 전문적으로 분화되고 그를 통해 개인의 주관적 가치는 객관적 근거를 갖게 되고, 그 결과로 대립되는 여러 가치들이 영원히 다투게 될 것을 예측

1) 세계를 이해하는 주체가 '생각하는 나'

2) 과학 속에서 지고한 객관성을 찾아내고 그 인과율에 의해 세계를 정리

- 과학이 가르쳐 준 것은 인간다운 가치관이나 도덕 관념과는 관계가 없는 것

1. 배움의 의미 탐색

3) 톨스토이의 물레방아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이미지출처_ <https://www.crowdpic.net/photo/water-outdoors-%EC%98%A5%EC%99%B8-%ED%8F%AD%ED%8F%AC-%EB%AC%BC%EB%A0%88%EB%B0%A9%EC%95%84-691029>

과학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

1. 배움의 의미 탐색

4) 독화살 이야기

세계는 영원한 것인가? 덧없는 것인가?

세계는 무한한가? 유한한가?

깨달음을 얻으면 끝이 있는가? 없는가?

독화살 맞은 사람의 이야기

“독화살을 뽑는 것이 급한가?
아니면
화살을 쏜 사람을 찾는 것이 급한가?
.....

놈을 찾아내려면 먼저 화살을 살펴봐야 합니다.”

1. 배움의 의미 탐색

5) 예수와 빌라도의 이야기

- 빌라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 예수: “그것은 네 말이냐? 아니면 나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려준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 빌라도: “도대체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 예수: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 빌라도: “아무튼 네가 왕이냐?”
- 예수: “내가 왕이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왔으며 그 진리 때문에 세상에 왔다. 진리 편에 선 사람들은 내 말을 귀담아 듣는다”

1. 배움의 의미 탐색

6) 빌라도의 편견

➤ 빌라도의 편견은 바로 그“무엇(what)”이라는 단어

➤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다르게 나온다

*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로 묻지 않고

'어떠한 것이 아름다움인가?'로 물으면
다른 답이 나온다 -니체-

1. 배움의 의미 탐색

7) 진리는 인격적이다

- 진리란 '저쪽 바깥'에 있는 대상도, 그러한 대상에 대한 어떤 명제도 아님을 보여준다.
- 진리는 인격적이며 모든 진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알려진다.
- 더 이상 그것(IT)이 아닌 너(Thou)인 우주 전체를 발견하게 되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들 뿐 아니라
우주 안의 모든 비인간 형태의 생명과 '너됨'의 유대를 이루어 즉
공동체의 유대를 이루어 배우고 살아가야 한다.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파커 팔머, IVY-

2. 의미 만들기

1) 어떻게 읽을까?

“철도”라고 쓰고 “환경”이라 읽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앞 광고-

“철도”라고 쓰고 **“만남”**이라고 읽습니다

“철도”라고 쓰고 **“여행”**이라고 읽습니다

“철도”라고 쓰고 **“추억”**이라고 읽습니다

“철도”라고 쓰고 **“일일 생활권”**이라고 읽습니다

의미 있게 하기 (making senSe)

2. 의미 만들기

2) 현대레알사전(동영상 시청)



~2분27초/ 3분 7초_끝

2. 의미 만들기

3)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
나는 배웠다.

과제 7

나는 배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랑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뿐이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선택이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 자신을 비교하기 보다는
내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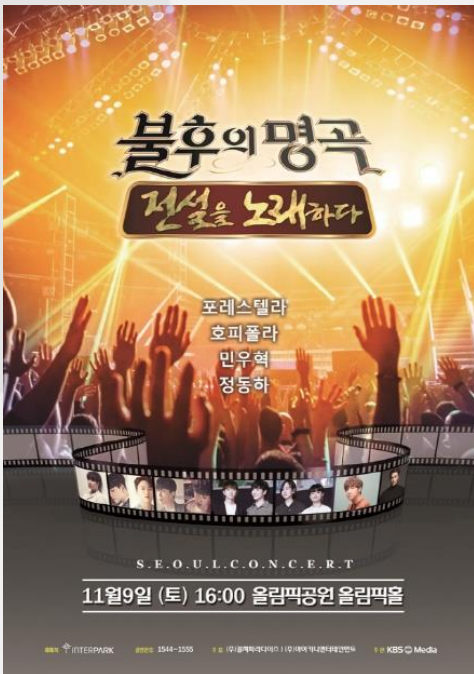
그리고 또 나는 배웠다.
인생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2. 의미 만들기

4) 의미의 재구성

학습은 학습자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 학습자는 사물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구성
- '학습자'가 핵심으로 떠오름



다시 만들기(remake)
새롭게 하기(making new)
의미 있게 하기(making senSe)

2. 의미 만들기

5) 재구성을 위하여(용기)



길이 아닌 길이라...

길이라는 것이 어찌 처음부터 있
단 말ियो... 한 사람이 다니고,
두 사람이 다니고 ...많은 사람이
다니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법...

이 썩은 세상에 나 또한 새로운
길을 내고자 달려왔을 뿐ियो.

2. 의미 만들기

6) 재구성을 위하여(용기)

희망이란

애당초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땅 위에 생겨나 있는

()과도 같은 것입니다

()은 애당초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곳이 절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루쉰 <고향>중에서-

2. 의미 만들기

7) 재구성을 위하여(언어나 이미지에서 탈출)

마을의 어린이에게 <천자문> 千字文을 가르쳐 주다가,
읽기를 싫어해서는 안 된다고 나무랐더니, 그 애가 하는 말
이 “하늘을 보니 푸르고 푸른데 하늘 천 天이란 글자는
왜 푸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싫어하는 겁니다”하였소.

연암, <창애에게 답함>



Ⅱ.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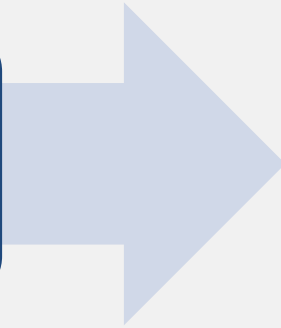
1. 배움의 발견
2.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1. 배움의 발견

1) 새롭게 조명되는 배움

언제

어디서



- * 인간에게 배움은 본성
- * 평생학습사회

1. 배움의 발견

2) 들뢰즈가 말하는 배움

- 배움을 무한한 차이의 반복을 통해 학습자의 신체와 정신에 ()이 계속해서 창조되는 것으로 정의.
- 어떤 물질, 어떤 대상, 어떤 존재든 해석하고 해독해야 할 기호를 방출하는데 인식의 주체가 이 기호와의 마주침으로 기존의 ()을 해체하고 새로운 ()을 만들어가는 것이 배움.
- 가르침은 배움에 비해 부차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가르침의 의미는 배움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것

배움에 근거한 가르침을 학생과 함께 하는
교사 자신의 '배움' 행위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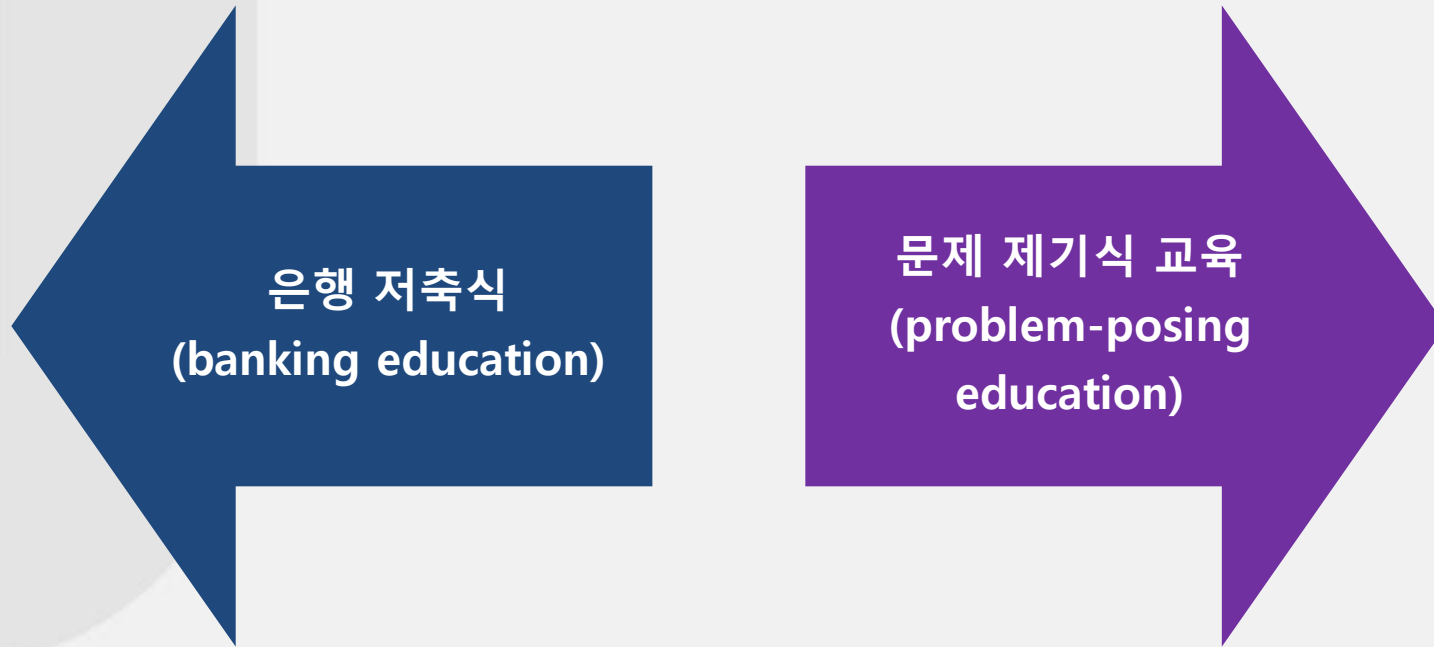
1. 배움의 발견

3) 프레이리가 말하는 배움

- 교육적인 관계인 교수자-학습자, 교사-학생의 관계에서 배움이 억압 받는 상황을 통찰
- 억압적 상황의 극복을 ()에서 찾음.
- 인간이 보다 인간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본 Freire는 「페다고지」에서 교사와 학생이 교육현실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성을 뺏고, 빼앗는 상황을 비판하며 교사와 학생이 단절과 고립을 극복하고 ()와 상호성(mutuality)을 회복하여 본래적인 교육, 살아있는 교육 실재로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

1. 배움의 발견

4) 프레이리가 말하는 교사-학생의 관계



교수자와 학습자가 '함께' 처한 현실에 대해
인식하며 ()를 통해 서로에게 배우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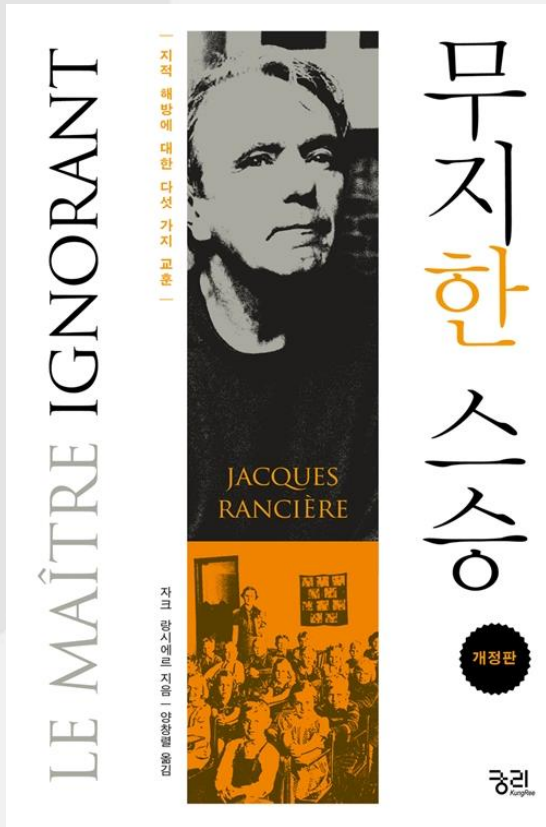
1. 배움의 발견

5) 타인과의 상호작용(가다머)

- 인간이 대화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몇 십년간 철학적 노력을 해 온 Gadamer는 강의(Vorlesung)를 학문적 활동의 위험한 관행 중 하나로 간주한다. 강의는 담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 Gadamer는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다시 학습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고자 하는 감각(제6감)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과 ()하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길러진다고 한다.

1. 배움의 발견

6) 무지한 스승(자크 랑시에르)



“나는
모르는 것을
가르쳤다”

이미지 출처_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91522587>

1. 배움의 발견

7) 무지한 스승(자크 랑시에르)

- 교수자의 설명 없이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배움 활동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텍스트 하나만을 가지고 배움
- 학습자의 이해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바로잡기 위해 설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이 무능력이란 설명자의 세계관이 지어내는 허구
- Freire(2002)도 교사-학생 관계는 근본적으로 설명적(narrative) 성격을 띠는데 이 설명의 내용은 가치관에 관한 것이든, 현실의 경험적 차원에 관한 것이든 설명되는 과정에서 생명력을 잃고 무미 건조해진다고 함

1. 배움의 발견

8) 배움은 본받는 것

「논어집주」 학이편에는 ‘**學**而時習之不亦說乎’

學은 본받는 것
배움이란
본받는다는 뜻

1. 배움의 발견

9) 로저스1

1. 나는 다른 이에게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2. 다른 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나는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4. 행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학습은 자기 발견적이고 자기 고유의 학습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5. 자기 발견적 학습과 경험을 통해 개인적으로 자기 것으로 흡수된 진실은 다른 이들과 직접적으로 교류될 수 없다. 그러한 개인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교류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는 종종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행위가 되며, 그 결과는 보잘 것 없게 된다.

1. 배움의 발견

10) 로저스2

6. 앞의 결과로 인해 나는 교사가 되는 것에 흥미를 잃었다.
7. 종종 내가 가르치기를 시도할 때, 단순히 보잘 것 없지만은 않아 보이는 그 결과에 소름이 끼치곤 한다. 이는 때때로 가르치기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학습자에게 해롭기 때문이다.
8. 이러한 가르치기는 학습자가 자기 고유한 ()을 불신하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학습을 억제하게 만든다. 따라서 '가르치기'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거나 해로울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2.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1) 배우는 자이며 가르치는 자

배운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아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행한다는 것은 당신이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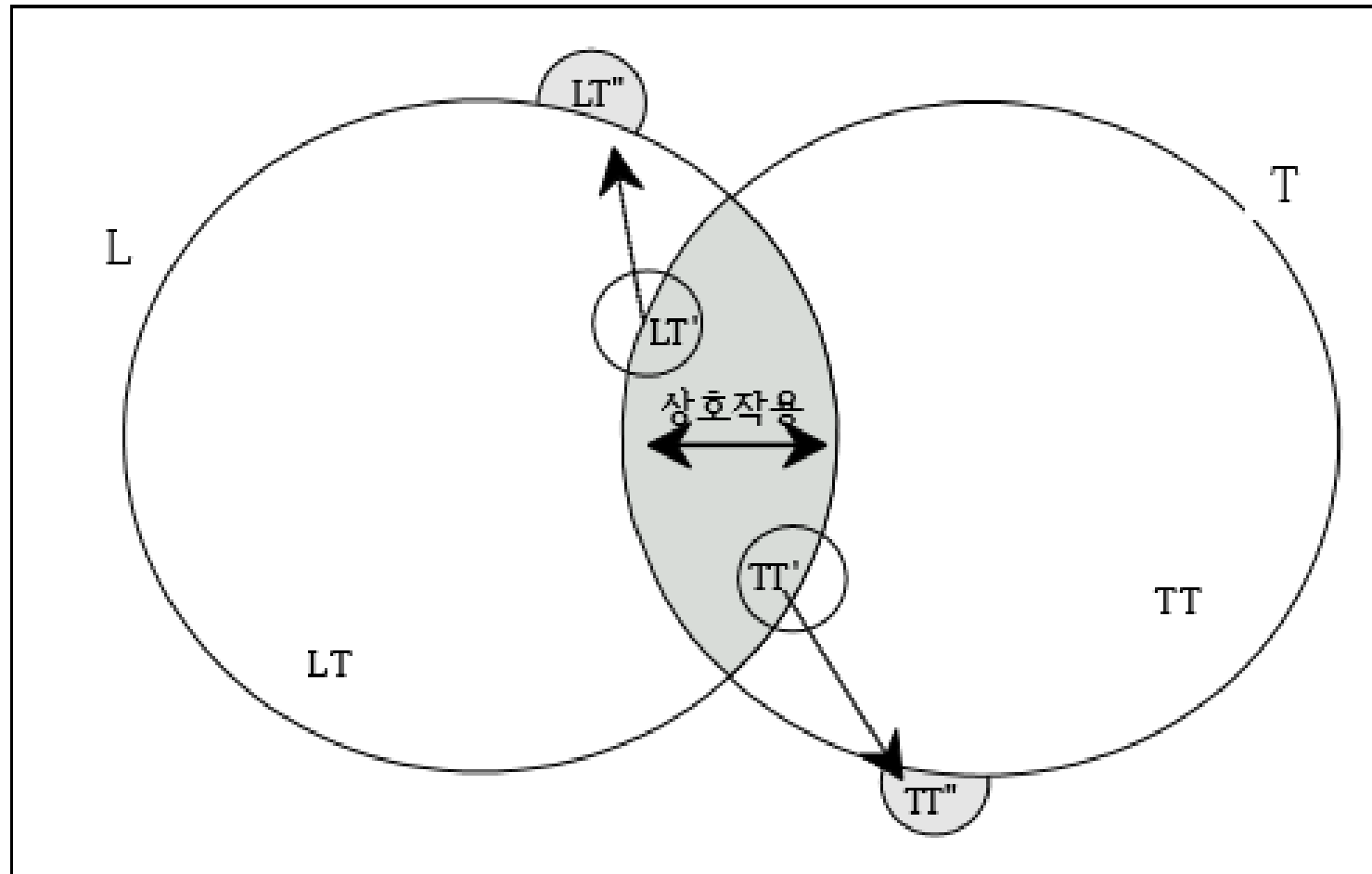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도 당신만큼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는 것이다.

당신은 배우는 자이며, 행하는 자이며, 가르치는 자이다”

2.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2) 배움의 나눔과 확장





Ⅲ. 안다는 것

1. 앎에서 실천으로
2. 실천에서 앎으로

1. 앎에서 실천으로

1) 아는 것이 힘일까?



아는 것이
힘이다

지행합일
知行合一

1. 앎에서 실천으로

2) 이렇게 해야 아는 것

만남과 대화

- 정보와 지식, 경험을 서로 나눔

의미의 재구성

- 다시 만들기 (remake)
- 새롭게 하기 (making new)
- 의미 있게 하기 (making senSe)

학습의 개조과정

- 행동의 변화, 행위의 차별화
- 생각의 변화를 불러 일으키기

1. 앎에서 실천으로

3) 학습

학(學)

- 子(아들 자) 臼(절구 구) 𠂔(효 효)의 합으로 구성된 글자. 즉 사람이 두 손을 받들어 좋은 본을 받아들임

습(習)

- 羽(날개 우) 白(흰백) 백자는 自(스스로 자의 약자)의 합으로 구성된 글자. 즉 스스로 날갯짓을 하여 날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

1. 앓에서 실천으로

4) 습



習

새끼 새는 어미 새의 날개 짓을
모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1. 얌에서 실천으로

5) 언제 어디서나 배움

포털사이트

위키백과/
나무백과

유튜브

SNS

그리고
만남에서

2. 실천에서 앞으로

1) 개념을 새롭게 창안

1. 우리는 어떤 개념을 일반화하고, 이를 원형(原型)으로 삼아 세계를 이해하고 가치를 판단
2. 개념은 사물에 붙이는 단순한 꼬리표가 아니라 세계를 절단하는 특정한 방식이자 방향성

들뢰즈는 철학을 “개념의 창안”으로 정의

-철학이란 도그마화된 기존의 개념을 의심하고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를 전과는 다르게 보도록 하는 것

2. 실천에서 앎으로

2) 배움은 생명 같은 것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한데 죽으면 뻣뻣해진다.
만물과 초목이 생겨날 때는 부드럽고 여린데 죽으면 바짝 마른다.

그러므로 뻣뻣한 것은 죽음의 유형이고 유약하고 미세한 것은 삶의 유형이다.
그러므로 병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강하기만 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도 단단
해지면 잘리게 된다.

강대한 것은 아래에 처하게 되고
유약하고 미세한 것은 오히려 위에 거한다.

人之生也柔弱, 其死也堅強. 萬物草木之生也柔脆, 其死也枯槁.
故堅強者死之徒, 柔弱者生之徒. 是以兵強則不勝, 木強則兵.
強大處下, 柔弱處上.

노자 도덕경 76장

2. 실천에서 얌으로

3) 질문하기

“철학에서, 그리고 심지어 다른 것에서도, 진실로 중요한 것은 ()를 푸는 것보다는 ()를 발견하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설정하는 일이다”

-베르그송, <사유와 운동>-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이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이다

2. 실천에서 앎으로

4) 씹어야 내 것이 된다



<https://clothesofheaven.tistory.com/64>

외로워서 밥을 많이 먹는다던 너에게
권태로워 잠을 많이 잔다던 너에게
슬퍼서 많이 운다던 너에게
나는 쓴다.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네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 천양희, 「밥」

핵심정리

1. 오늘 우리가 배운 것

- (1) 배움의 의미
- (2)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 (3) 진정으로 '안다는 것' 은 무엇인가?

2. 참고문헌

- (1) 강상중.<고민하는 힘>.사계절. 2009
- (2) 채운.<재현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 (3) 파커. J. 파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IVP. 2014
- (4) 이진경. <철학과 굴뚝 청소부>. 동녘. 2005
- (5) 김재춘·배지현. "들뢰즈 철학에서 '배움'과 '가르침' 의 의미와 관계 탐색".교육학연구.제50권 제3호.2012
- (6) 가다머. <교육은 자기교육이다>.현대신서.2004



핵심정리

2. 참고문헌

- (7) 자크 랑시에르. <무지한 스승>. 궁리출판. 2008
- (8) 리처드 바크. <나를 찾는 길>. 하문사. 1997
- (9) 한준상. <호모 에루디티오>. 학지사. 2002
- (10) 칼 로저스·H. 제롬 프라이버그 공저. 시스마프레스. 2011

3. 동영상

- (1) 영상자료_현대레알사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이번 시간

07. 배우는 즐거움

다음 시간

09. 죽음과 죽어감